

조선시대 지방청사 동헌에 심은 탱자나무

🌳	충남 부여군 석성면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지정번호	부여-116	석성리 764-3	
지정년도	1979	36° 13' 27.96" N	
관리기관	부여	126° 59' 21.00" E	
수령	380년		
수고	7m		
흉고둘레	0.7m		



남굴북지[南橋北枳]의 고사가 있다. 남쪽 땅의 굴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로 변한다는 뜻이다. 회하라는 강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을 갈랐다. 굴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속담으로 쓰기도 한다. 같은 뜻의 고사가 굴화위지[橘化爲枳]이다. 사람이 처해있는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지만 탱자의 쓸모가 굴보다 못함을 포함하기도 한다. 탱자나무 열매는 단맛이 적어 식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약재의 사용은 많다. 줄기는 굴나무나 유자나무의 접붙이기 때에 대목으로 쓸모가 많았다. 부여 석성리 동헌(충남 유형문화재 제124호) 앞마당에는 오래된 탱자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이곳 동헌은 조선시대 지방 현의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이다. 조선 인조 6년(1628)에 석성현의 현감이 공무를 볼 동헌을 지었다. 탱자나무는 그 당시에 동헌 앞마당에 심은 것이라 하니 그 나이가 380년이다. 가슴 높이 둘레 70cm에다 높이가 7m까지 잘 자란 큰 나무이다. 동헌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곧바로 보이는 자리에 서 있다. 동헌의 탱자나무는 줄기가 어른 무릎 높이에서 크게 갈라진다.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 쪽으로 늘어져있다.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터널 모양이다. 때문에 가지에 잎이 무성하게 달리면 가운데의 굵은 줄기가 보이지 않는다. 나뭇가지가 만들어내는 안쪽의 터널 공간으로 들어가야 날카롭게 솟아나온 가시가 눈에 들어오고, 기둥 줄기를 볼 수 있다. 탱자나무는 무엇보다 울타리로서의 쓰임새가 가장 요긴하였다. 이외에도 탱자나무의 가시가 귀신을 막아주고 악귀를 쫓아내는 벽사[辟邪]의 의미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남성형 귀신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나고, 여성형 귀신도 땅에 끌리는 치마를 입고 나타나는데, 옛사람들은 이 귀신들이 집으로 찾아들다 탱자나무 가시에 걸리면 깜짝 놀라 도망친다고 믿었다. 동헌의 탱자나무는 안타깝게도 식재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울타리용으로 심은 것 같지는 않다. 다른 나무와 함께 식재된 것이 아니라 앞마당에 홀로 서 있기 때문이다.